

## [QT 세미나]

###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시금석

이상규 목사 / 1999 / 페이지수: 2

왜 예수님의 말씀은 ‘침’(rest)을 주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 곧, 그의 ‘멍에’는 쉽고 그가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후 1세기 팔레스틴 땅의 사람들은 소위 그 시대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여겨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마 11:25)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어준 실로 무거운 짐과 멍에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그 당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무서운 시대정신의 폐부를 꿰뚫어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워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마 23:2~4)

#### 주님의 멍에를 덧 입고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모든 기존의 멍에와 짐을 거부하는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준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9). 이 말씀에서 보듯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인 ‘마음’(카르디아)으로부터의 쉼은 단순히 모든 멍에-가르침, 권위 있는 계명, 사상-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멍에-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를 매는 데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사람은 결코 홀로일 수 없다. 사람의 본질은 피조성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갈 것 이니라”(창 3:19).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근원, 원점은 ‘흙 됨’이다. 그 아무 것도 아닌, 피조물 됨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능력과 권위를 지닌 대상, 그러한 신적 존재의 계명,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즉 사람은 권위 있는 멍에와 짐을 메어야만 안심하는 존재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계명을 지키고 멍에와 짐을 통해 자유와 생명, 보호와 안식을 얻고자 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심층에 면면히 흐르는 인간의 수고이다. 간곡한 영원이요, 갈증이며 불안이고 종교성이다.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멍에의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는 했으나 결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간들의 해석체계요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주의 멍에의 내적구조와 본질은 그 멍에를 메면 멀수록, 그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괴리감과 간격을 만들어내고 그토록 얻고자하는 평안과 안식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진 회칠한 무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라고 선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면 “다 내게로 오라”(마 11:28),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하셨던 것이다.

### 새로운 일상의 지평

요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통찰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 시대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선생들, 사상들의 가르침과 음성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상대적 가치들의 정들 속에서 방황하며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마 9:36)

그러므로 “다 내게로 오라”하신 외침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세계에로 불러내시는 위대한 엑소도스(Exodus)의 음성인 것이다!

이 초청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의 지평을 연다. 주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지성소) 속에 들어 갈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안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마치 “어린아이들”같이(마 11:25) 아버지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다. 이것은 ‘온유와 겸손’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 34:5,11) 예수께서는 이 시편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의 복’으로 인용하셨다(마 5:5).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시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가득한데서 흘러나온 말씀-“나의 멍에”-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 아버지가 이루게 하시는 원리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의 가르침의 요약이요 응집이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인생을 내 힘과 수도로 살라는 사상이 아니라 ‘맡기고 의지하여’ ‘저가 이루시게’함으로써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한계와 불안과 수고의 무저갱으로부터 건짐받아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는 음성인 것이다.

### 주의 음성의 식별, 쉼과 열매로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 맡겨 이루는 길은 깊은 쉼을 줄 뿐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2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큰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쉼과 열매가 우리가 큐티 때에 들은 음성이 참으로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시금석인 것이다.

\* 출처 : QT신문